

2020-2학기 인문고전학습 프로그램(Veritas Forum) 운영계획서

1. 학습반 명칭 : 고대 중국어 음성/음운 초급 학습반 II

(1) 학습 목표

본 강좌는 인문고전 학습 토대 마련을 위한 고대중국어 음운체계 기초 지식 습득 및 활용 능력 배양을 목표로 한다. 본 강좌는 고대중국어 음성/음운 학습의 입문 단계로, 中古時期(대략 唐代)에 한정하여 한자음에 대해 학습한다. 먼저, 한국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한국한자음을 이용하여 고대중국어 음운 체계를 학습한다. 학생들은 한국한자음 작업 연습을 통해 자연스럽게 고대중국어 음운체계 관련 지식을 습득하게 되며, 한국한자음과 고대중국어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학생들은 공구서를 활용하여 唐詩를 재구해 보는 연습을 통해 스스로 고대중국어(中古漢語)를 재구할 수 있어, 당시의 詩人이 어떤 발음으로 압운하며, 시를 짓고 낭송했었는지 상상해보고, 어렵고 멀게만 느껴졌던 고대중국어 음성/음운에 흥미를 가지고 학습하여, 고대중국어 및 중국 고전 학습과 관련된 기초를 닦게 된다.

(2) 필요성 및 기대 효과

고대중국어 음운 학습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대중국어의 음운체계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현대중국어는 고대중국어에서 발전되어 왔기 때문에, 고대중국어 음운체계를 이해하면 현대중국어의 음운체계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둘째, 중국 고전 문학을 공부하는데 도움을 준다. 고대의 시가(詩歌)나 운문(韻文)은 압운과 평측(平仄)을 중시하는데, 작가가 살았던 시기의 음운체계를 이해하면, 시가(詩歌)나 운문(韻文)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셋째, 중국 역사, 중국 철학사 등 고서를 다루는 다른 학문 연구에 도움을 준다. 중국어 고문을 다룰 때 사용되는 많은 참고서들은 대부분 고음에 의해 배열되어 있으며, 음의 표기가 반절(反切)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하려면 고음(古音)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고문(古文)에는 음만 같은 다른 글자인 통가자(通假字)가 많은데, 고음 지식이 없다면 이를 정확하게 해석할 수 없다.

학생들은 본 강좌를 통해 고대중국어 음운체계의 기초 지식을 습득하고, 다양한 훈련을 통해 공구서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또한 스스로 고대중국어

(中古漢語)를 재구하여 당시 사람들이 어떤 음으로 발음하였는지 알 수 있게 되어, 고대중국어에 흥미를 가지고 접근할 수 있게 되고, 중국 고전 학습의 기초 실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3) 운영 기한 및 교재

<수강 조건 및 방식>

본 강좌는 기초부터 시작하는 학습반이므로 음성/음운학이나 고대중국어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어도 무방하며, 사전과 공구서를 활용하여 진행하기 때문에, 옛 중국인들이 어떻게 발음하였을지 관심이 있는 학생이면 누구나 수강 가능하다.

본 강좌는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여 진행된다.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한국 한자음을 사전에서 찾고, 함께 자료를 정리해 보는 과정을 통해 고대중국어 음운 학습과 관련된 기초 지식을 자연스럽게 습득한다. 또한 공구서를 함께 찾고,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고대중국어를 재구해 보는 연습을 하며, 스스로 공구서를 활용하여 唐詩를 재구해 보는 연습을 통해 성취감을 높인다.

<교재>

0. 유인물(워크북)

1. 『音韻學教程(第三版)』(唐作藩 2002) 한국어 번역본: 『한자 음운학』(심소희 2015), 교육과학사
2. 『方言調查字表』, 商務印書館
3. 『廣韻』, 『韻鏡』

(4) 회차별 학습 일정(8주 / 1회당 2시간) 20년 10월 1일 이후~21년 1월 30일까지

일시	강의 내용
1회차	중국어 음운구조의 특징, 반절이란 무엇인가
2회차	고대중국어(中古漢語) 성모의 기본 개념
3회차	고대중국어(中古漢語) 운모의 기본 개념
4회차	고대중국어(中古漢語) 성조의 기본 개념, 등운도
5회차	『廣韻』의 성모 체계와 현대중국어, 한국한자음 성모의 비교
6회차	『廣韻』의 운모 체계와 현대중국어, 한국한자음 운모의 비교
7회차	『廣韻』 음계의 재구, 반절의 규율, 고대중국어(中古漢語) 재구 연습
8회차	고대중국어(中古漢語)에서 현대중국어로의 변천, 총정리

(5) 담당교수 노혜정(중국어연구소)

2. 학습반/강독반 명칭 : 만주어 중급 학습반 II

(1) 학습 목표

만주어를 독해할 수 있도록 학습한다.

(2) 필요성 및 기대 효과

만주어와 한국어의 친연성을 이해할 수 있고 북방민족에 대한 이해를 제고함으로써 문화사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3) 운영 기한 및 교재

<수강 조건 및 방식>

학부생 및 대학원생을 수강 대상으로 함.

<교재>

<청어노걸대>, <만주실록>

(4) 회차별 학습 일정(12주 / 1회당 2시간) 20년 3월 16일 이후~20년 8월 말까지

일시	강의 내용
1회차	독해1 청어노걸대1
2회차	독해2 청어노걸대2
3회차	독해3 청어노걸대3
4회차	독해4 청어노걸대4
5회차	독해5 청어노걸대5
6회차	독해6 만주실록1
7회차	독해7 만주실록2
8회차	독해8 만주실록3
9회차	독해9 만주실록4
10회차	독해10 만주실록5

(6) 담당교수 - 이훈 (고려대 사학과)

3. 학습반/강독반 명칭 : 논어 학습반 II

(1) 학습 목표

- 이 강독반은 『論語』 강독을 통해 다음 세 가지 목표를 성취하고자 한다.
- 전통사회의 필독서였던 『論語』의 내용 이해
 - 孔子的 학문과 사상에 대한 이해
 - 한문 문법 이해를 통한 한문독해역량 강화

(2) 필요성 및 기대 효과

『論語』는 儒家의 聖人인 孔子의 言行 및 그와 제자들 사이의 問答을 기록한 글이다. 孔子에 대해 기록한 글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論語』는 그 중에서도 가장 신뢰할 만한 글이다. 이는 공자의 제자들이 지척에서 보고 들은 내용을 그대로 기록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儒學의 근본정신을 정확하고 깊이 있게 이해하려면 이 책을 읽지 않을 수 없다. 退溪 李滉이 학자가 가장 먼저 공부해야 할 서적으로 이 책을 거론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이다. 과거에는 한국뿐 아니라 중국, 일본, 베트남 등 한문문화권에 속한 나라들에서도 이 책이 가장 널리 읽혔다. 따라서 유학사상이나 동양사상에 접근하고자 하는 이들은 『論語』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논어 강독의 기대효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論語』를 통해 孔子思想을 공부함으로써 儒家 思想의 핵심을 이해할 수 있다.
- 문법적 기능을 담당한 虛辭를 중심으로 『論語』를 공부함으로써 한문공부의 기초를 닦을 수 있다.
- 孔子의 통찰이 담긴 『論語』의 警句를 통해 우리의 삶을 성찰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3) 운영 기한 및 교재

<수강 조건 및 방식>

- 한문 독해에 대한 소양을 갖추고자 하는 학생이면 누구라도 수강이 가능함.
다만 한자를 모르는 학생은 연습이 필요함.
- 강독 기간 중 80% 이상 출석할 수 있는 학생이면 가능함.
- 강독은 강사의 주도로 진행됨.

<교재>

- 『論語集註』
(朱熹의 集註가 『論語』 원문과 함께 실려 있는 책이면 어떤 판본이든 상관 없음)
- 번역본은 수업시간에 사용하지 않고 수강 학생이 참고서적으로 활용함.

(4) 회차별 학습 일정

일시	강의 내용
1회차	『論語』5 公冶長篇 후반부
2회차	『論語』6 雍也篇 1강
3회차	『論語』6 雍也篇 2강
4회차	『論語』6 雍也篇 3강
4회차	『論語』7 述而篇 1강
5회차	『論語』7 述而篇 2강
6회차	『論語』7 述而篇 3강
7회차	『論語』7 述而篇 4강
8회차	『論語』8 泰伯篇 1강

(5) 담당교수 - 유호진(고려대 한문학과)

4. 학습반/강독반 명칭 : 맹자(孟子) 학습반 II

(1) 학습 목표

- 「맹자」원문 강독을 통해 한문독해력을 기르고, 유가를 중심으로 전국시대 제가(諸家)의 사상을 공부하여 문학, 사학, 철학의 기초를 다지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필요성 및 기대 효과

- 필요성 : 『맹자』는 남송의 주희가 『논어』·『대학』·『중용』과 함께 ‘사서’의 위치로 격상한 이래, 성리학을 국교로 삼은 조선의 선비들에게 매우 사랑받은 책이며, 현재에도 인문분야 전공자는 물론 대중에게 널리 읽히고 있다. 특히 한국인이 많이 읽은 책이라 하겠다. 따라서 한국 문인의 사상을 알려면 반드시 먼저 『맹자』를 읽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현재 『맹자』를 가르치는 곳은 한국고전번역원을 포함한 몇 군데 교육기관뿐이므로 인문분야를 전공하거나, 이 분야에 관심을 둔 학생들이 쉽게 접근하기 어렵다. 대학혁신지원사업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 기대 효과 : 1. 『맹자』는 예로부터 한문독해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최적의 교재로 활용되어 왔다. 『맹자』에 익숙해지면 여타의 한문 원전을 읽는데 큰 도움을 얻을 수 있다. 2. 아울러 『맹자』안에는 중국 전국시대에 유행했던 제가(諸家) 사상의 내용과 당시 전국시대의 역사적 사건이 수록되어 있다. 『맹자』를 읽음으로써 유가 이외의 사상과 역사를 배울 수 있다. 3. 위에서 밝혔듯이 『맹자』는 한국에서 가장 사랑받은 책 중 하나이므로 『맹자』를 읽으면 한국 문인의 글과 사상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다.

(3) 운영 기한 및 교재

<수강 조건 및 방식>

- 수강조건 : 『맹자』는 문장이 길기 때문에 한자나 한문을 전혀 모른다면 공부하기 어렵다. 학교에서 개설한 한자, 한문 과목을 수강한 적이 있는 학생이면 수강이 가능하다.
- 수업방식 : 1. 강사가 강의를 한 후, 수강생의 질문을 받고, 이후 수강생이 배운 내용을 소리 내어 읽고 해석한다. 글자를 따라가면서 직역하는 ‘축자역’으로 강의. 2. 첫째 시간에 수강생의 수준을 가늠해 보고, 주석까지 공부할지의 여부를 결정.

<교재>

김혁재 교열, 『맹자집주』, 명문당

(4) 회차별 학습 일정(12주 / 1회당 2시간) 20년 3월 16일 이후~20년 8월 말까지

일시	강의 내용
1회차	「공손추(公孫丑)」하
2회차	「등문공(滕文公)」상
3회차	「등문공(滕文公)」상
4회차	「등문공(滕文公)」하
5회차	「등문공(滕文公)」하
6회차	「이루(離婁)」상
7회차	「이루(離婁)」상
8회차	「이루(離婁)」하

※ 수강생이 전원 새로 왔을 경우엔 1장인 「양혜왕」부터 시작.

(5) 담당교수 - 김재욱(고려대 한문학과)

5. 학습반 명칭 : 플라톤 <국가> 강독반

(1) 학습 목표

본 강독반은 철학 전공자를 비롯하여 인문학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철학 고전인 플라톤의 『국가』를 원전과 번역본을 함께 대조하면서 강독함으로써 철학 원전을 읽을 수 있는 독해력을 기르고, 플라톤의 철학에 대한 이해를 통해 오늘날 우리의 삶을 관통하는 사상적 기초를 비판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해석학적 체험을 목표로 한다. 시간의 제약으로 『국가』 제 2권, 4권, 7권을 강독한다.

(2) 필요성 및 기대 효과

학부의 정규 강의에서는 한 권의 고전을 깊이 있게 읽고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본 강독반과 같은 심화학습의 기회가 매우 중요하다. 본 강독반에 성실하게 참여한 학생은 플라톤 철학에 대한 개론적 수준을 넘어서는 보다 명료한 이해에 도달할 수 있으며, 또한 고전 텍스트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검토하면서 철학 원전에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의 기초를 습득하게 될 것이다.

(3) 운영 기한 및 교재

<수강 조건 및 방식>

- * 특별한 수강 조건은 없음.
- * 수강자는 성실하게 강독에 참여하고, 텍스트의 내용과 자신의 삶을 비교하며 성찰하고,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토론에 응해야 한다.

<교재>

- * 영어 번역본 The republic / Plato ; edited by G.R.F. Ferrari ; translated by Tom Griffith. Cambridge University Press , 2000.
- * 한글 번역본 『국가』(박종현 역)
- * 희랍어는 필요한 용어를 강사가 발췌하여 설명.

(4) 회차별 학습 일정(8주 / 1회당 2시간) 20년 10월 1일 이후~21년 1월 30일까지

일시	강의 내용
1회차	『국가』 2권
2회차	『국가』 2권
3회차	『국가』 2권
4회차	『국가』 4권
5회차	『국가』 4권
6회차	『국가』 4권
7회차	『국가』 7권
8회차	『국가』 7권

(5) 담당교수 - 편상범(고려대 철학과)

6. 학습반 명칭 : 구운몽 강독반

(1) 학습 목표

1. <구운몽> 원전(한문본과 한글본) 강독.
2. <구운몽>에 담긴 김만중의 문학적 역량, 사상적 측면 이해.
3. 한문소설 전고에 대한 기본적 이해.
4. <구운몽>을 통한 동아시아 문학 및 문화 이해

(2) 필요성 및 기대 효과

<구운몽> 색다르게 읽기!

<구운몽>은 한국의 대표적인 고전소설로, 김만중이 창작했던 조선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소중한 문화자산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구운몽>의 일부분이 수록되었을 것이다. 다만 그 발췌된 부분이 작품의 일부이며 작품 전체의 특징적 면모를 잘 드러내 주는 부분도 아니다. 게다가 수업시간에는 발췌본에 바탕을 두고 <구운몽>의 주제를 확인하는 교훈적 독서만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제로 대다수의 학생들은 <구운몽>의 진면목을 알지 못하고 있다. 그간 빙산의 일각만을 뜯어서 살피며 정작 작품보다는 그에 대한 이론만이 분분했던 고전읽기에서 벗어나 원전을 그대로 읽어보자. 색다르게, 원색을 찾아서.

<구운몽> 즐겁게 읽기!

독서의 기본은 본문을 그대로 읽어나가는 것이다. 고전에 담긴 교훈이라는 무게감없이, 사상적 지향을 뽑아내야 한다는 부담감없이 그냥 읽어 내려 가야 한다. <구운몽>의 주제에 대해 쏘 사상이니 금강경이니 하는 여러 가지 학문적 논의들은 한 번씩은 다 들어봤을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정작 <구운몽> 독서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독서를 방해한다. 실제로 작품을 읽어보면 작가의 남성적 환타지에 감탄을 금치 못하기도 하고 문학적 상상력에 매료되곤 하는데, 지금까지의 교훈적 독서, 주제 찾기 방식의 독서는 그 점을 제한했다. 이제 온 몸의 힘을 빼고 읽어보아야 한다.

<구운몽> 다 읽어보기!

<구운몽>은 작품이 갖는 우수성으로 인해 이미 영어, 독일어, 러시아어, 체코어 등으로 번역된 몇 안 되는 고전이다. 그럼에도 현재 거의 90% 이상의 학생들이 <구운몽>의 주제만 (!) 알고 있다. 이번 <구운몽> 원전 강독을 통해 고전을 파편적으로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천천히 읽어감으로써 고전에 대한 감상 능력을 기르고 고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기르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3) 운영 기한 및 교재

수강조건

한문본과 한글본을 함께 읽으므로 매우 기초적인 한문 실력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성실성

운영 방식

- 1) 한문본과 한글본(완판본)을 함께 강독
- 2) 발표자가 자신의 분량을 성독 후 토론.
- 3) 중요 어구나 전고에 관해서는 담당강사가 설명.

* 전근대 사회에서 독서는 기본적으로 ‘성독(聲讀)’이었다. 소리내어 읽어보고 한문본과 한글본의 차이를 이해하며, 부분이 아닌 전체 작품을 통해 김만중과 당대인들의 욕망은 무엇이었는지 확인해 보자.

<교재>

정규복, 『구운몽자료집성』1, 보고사, 2010

김병국, 『구운몽』, 서울대, 2009.

(4) 회차별 학습 일정(8주 / 1회당 2시간) 20년 10월 1일 이후~21년 1월 30일까지

일시	강의 내용
1회차	<구운몽> 한문본과 완판본 비교 및 작품 개관 / 노존사(老尊師)는 남악(南嶽)에서 묘법을 강론하고, 소사미(小沙彌)는 돌다리에서 선녀를 만나다.(권1)
2회차	노존사(老尊師)는 남악(南嶽)에서 묘법을 강론하고, 소사미(小沙彌)는 돌다리에서 선녀를 만나다.(권1)
3회차	노존사(老尊師)는 남악(南嶽)에서 묘법을 강론하고, 소사미(小沙彌)는 돌다리에서 선녀를 만나다.(권1)
4회차	가춘운(賈春雲)은 신선도 되고 귀신도 되고, 적경홍(荻驚鴻)은 잠시 여자였다가 남자가 되다(권2)
5회차	가춘운(賈春雲)은 신선도 되고 귀신도 되고, 적경홍(荻驚鴻)은 잠시 여자였다가 남자가 되다(권2)
6회차	가춘운(賈春雲)은 신선도 되고 귀신도 되고, 적경홍(荻驚鴻)은 잠시 여자였다가 남자가 되다(권2)
7회차	혼례자리에서 난영(蘭英)이 이름을 꺼리고, 현수 자리에서 적경홍과 계섬월이 이름을 날리다.(권3)
8회차	혼례자리에서 난영(蘭英)이 이름을 꺼리고, 현수 자리에서 적경홍과 계섬월이 이름을 날리다.(권3)

(5) 담당교수 - 김정숙(고려대 융합문명연구원)

7. 학습반 명칭 : 라틴어 중급 학습반 II

(1) 학습 목표

초급 과정에서의 학습 내용을 토대로 삼아 고전 라틴어 지식을 심화, 발전시킨다. 그와 더불어 고전 라틴어의 세계, 즉 로마제국에 대한 지식을 확장해 간다.

(2) 필요성 및 기대 효과

학부 교양강의로 개설되어 있는 라틴어 강좌에서는 한 학기 동안 초급 라틴어 과정을 학습하게 된다. 한 학기의 라틴어 수강생은 대략 150명 정도이다. 그들 중 대다수는 초급 과정 수강으로 만족한다. 하지만 소수의 열의 있는 학습자들에게는 다음 단계의 라틴어 과정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학습자가 라틴어 문헌에 대한 학구적 관심을 지니고 있다면, 초급 과정의 라틴어 지식만으로 그 관심을 해소시키기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미래의 전문 연구자를 꿈꾸는 이들에게나 인문학적 소양을 심화시키고자 하는 이들에게 라틴어 심화 과정은 지적 욕구와 학습 의욕을 충족시켜주는 의미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3) 운영 기한 및 교재

<수강 조건 및 방식>

- 학부 라틴어 강의 이수자
- 혹은 그에 상응하는 라틴어 학습 이력(예를 들어, Oxford Latin Course Part 1 학습)을 가진 자

<교재>

Oxford Latin Course Part 2

(4) 회차별 학습 일정

일시	강의 내용
1회차	Chapter 17 Comitia
2회차	Chapter 18 Quintus domo discedit
3회차	Chapter 19 Roma
4회차	Chapter 20 Ludus Orbilii
5회차	Chapter 21 Marcus Quintum domum suam invitat
6회차	Chapter 22 Ludi circenses
7회차	Chapter 23 Marcus Quintum ad balnea ducit
8회차	Chapter 24 Caesaris triumphus

(5) 담당교수 약력 - 고경주(고려대 사학과)

8. 학습반 명칭 : <도덕형이상학 정초> 강독반

(1) 학습 목표

칸트의 <도덕 형이상학 정초(*Grundlegung zur Metaphysik der Sitten*)>를 수강생들과 함께 강독한다. 이를 통해 수강생들에게 칸트가 제시한 도덕철학의 핵심 생각을 정리하고 오늘날 시각에서 조명해 본다.

(2) 필요성 및 기대 효과

'칸트의 대표작'하면 사람들은 통상 3대 비판서를 떠올린다. 그 중 <실천이성비판>은 도덕철학 분야와 관련한 주요저서라고 생각한다. 도덕철학 전문가들에게는 사실 <실천이성비판>(1788)보다는 <도덕형이상학 정초>(1785)를 더 중요한 문건으로 꼽는다. 혹자는 이책을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과 더불어 도덕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문건으로 꼽기도 한다. <도덕형이상학 정초>의 강독은 수강생들이 칸트의 의무론을 되짚어 보면서 윤리적 사고의 폭을 넓히고 그 깊이도 심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3) 운영 기한 및 교재

<수강 조건 및 방식>

1. 수강을 위해 독일어 능력을 갖추어야 할 필요는 없으나 독일어를 조금이라도 할 수 있다면 당연히 도움이 될 것임
1. 기본적으로 한글 번역본을 차근히 읽으면서 내용을 살펴볼 것이나 중요한 대목은 독일어 원전을 직접 읽으면서 그 의미를 새기도록 함

<교재>

Immanuel Kant, *Grundlegung zur Metaphysik der Sitten*, Felix Meiner, 2016.

<참고문헌>

칸트, <도덕형이상학 정초/실천이성비판>, 한국칸트학회 기획, 김석수/김종국 옮김, 한길사, 2019.

(4) 회차별 학습 일정(8주 / 1회당 2시간) 20년 10월 1일 이후~21년 1월 30일까지

일시	강의 내용
1회차	철학자 칸트와 <도덕형이상학 정초>에 대한 소개
2회차	<도덕형이상학 정초> 서론(Vorrede)
3회차	제1절 도덕에 관한 평범한 이성 인식에서 철학적 이성 인식으로 이행(1)
4회차	제1절 도덕에 관한 평범한 이성 인식에서 철학적 이성 인식으로 이행 (2) 제2절 대중적 도덕철학에서 도덕형이상학으로 이행(1)
5회차	제2절 대중적 도덕철학에서 도덕형이상학으로 이행(2)
6회차	제2절 대중적 도덕철학에서 도덕형이상학으로 이행(3)
7회차	제3절 도덕형이상학에서 순수실천이성비판으로 이행(1)
8회차	제3절 도덕형이상학에서 순수실천이성비판으로 이행(2)

(5) 담당교수 : 김화성(고려대 철학과)

9. 학습반 명칭 : 스티븐 호킹의 <시간의 역사> 강독반

(1) 학습 목표

스티븐 호킹(Stephen Hawking)은 우리 시대의 가장 뛰어난 이론물리학자 중 한사람으로 케임브리지 대학의 대학원생이었던 21살의 젊은 나이에 루게릭병이라는 운동신경세포 질환에 걸려 점차 온몸이 마비되는 역경을 겪은 것으로도 유명하다. 당시 2년밖에 살지 못할 것이라는 사형선고를 받았지만, 지난 2018년 7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물리학과 우주론 분야에서 활발한 학문활동을 했으며, <시간의 역사(A Brief History of Time, 1988)>를 비롯해서 많은 저서를 남겼고, 인공지능(AI)의 위험성을 제기하고 윤리원칙을 수립하는 등 과학의 사회적 영향에 대해 성찰하는 과학사상가로서도 중요하게 기여했다.

스티븐 호킹의 <시간의 역사> 강독반은 이미 현대의 고전이 된 그의 주저(主著) “A Brief History of Time”를 원문으로 읽고, 이 책에서 호킹이 제기했으며 우리를 포함해서 모든 인류가 품고 있는 근원적인 물음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우주는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시간이란 무엇인가?”, “시간과 공간은 절대적인가?”, “우주에는 끝이 있는가, 그렇다면 어떻게 종말을 맞이하는가?”와 같은 궁극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나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시간의 역사>는 발간된 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으며, 호킹 스스로 서문에서 밝히고 있듯이 당시 런던 <선데이 타임즈>에서 무려 237주 동안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랐으며, 이 기록은 성경과 셰익스피어를 능가하는 것이었다. 또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 40여개국에 번역되어 남자, 여자, 어린아이를 모두 포함해서 750명 당 1부씩 판매되었고, 마돈나가 섹스에 대해서 판 것보다 물리학에 대해서 더 많은 책을 판매했다는 평을 받기도 했을만큼 대중적인 과학서의 대명사가 되었다. 이 책은 저술가들의 해설이나 매개를 통하지 않고 세계적인 과학자들이 직접 대중에게 자신의 연구 성과를 전달하는 “과학 커뮤니케이션”의 새로운 전통을 세운 책으로도 평가받는다.

이 강독반은 과학 고전을 자주 접해보지 못한 인문학이나 사회과학 전공자들은 물론, 과학이나 기술을 전공하지만 정작 현대 과학의 고전을 원문으로 읽어볼 엄두를 내지 못했던 이공계 학생들에게도 물리학과 우주론의 고전을 직접 읽으면서 토론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2) 필요성 및 기대 효과

필요성; 스티븐 호킹의 <시간의 역사>는 17세기에 아이작 뉴턴의 <프린키피

아>로 대표되는 근대 물리학의 역학적 세계관이 수립된 이래, 20세기 초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과 양자역학에 이르는 근대 물리학의 흐름을 알기 쉽고 간결하게 개괄하고, 호킹 자신의 블랙홀 이론을 비롯한 최신 물리학 이론과 빅뱅 이론을 비롯한 우주론(宇宙論) 까지 소개해주고 있다. 따라서 수강생들을 현대 과학의 토대이자, 근대적 사유체계의 인식적 기반에 해당하는 물리적 세계관을 세계적인 학자인 호킹의 저서를 통해 학습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호킹의 첫 번째大作인 이 책은 그동안 근대 물리학이 표방했던 자연에 대한 태도를 전형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물리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은 물론 철학이나 사회학, 역사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도 이른바 “근대성(modernity)”의 인식적 특성을 확인하고 성찰할 수 있는 궁극적인 물음들을 제기한다.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호킹은 “이론물리학의 끝이 보인다”고 말하면서 이 세계에 대한 물리학적 설명이 “완성”될 수 있을 것이라는 강한 믿음을 내비쳤으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신의 마음(the mind of God)”을 들여다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것은 근대 물리학의 자신감을 잘 보여준 말이다. 호킹은 이후 발간된 <호두껍질 속의 우주> 등에서 좀더 겸손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기대 효과: 호킹의 <시간의 역사>는 대학교수부터 푸줏간 주인까지 폭넓은 계층에 걸쳐서 많은 부수가 팔렸지만, 다른 한편 끝까지 읽은 사람이 거의 없는 책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많은 과학 고전들이 그러하듯이, 과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과학은 어렵다”는 고정관념이 워낙 강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현대 물리학과 우주론의 주요 개념들이 망라되어 있는 이 책을 학생들이 원전으로 직접 읽기는 힘들다. 따라서 과학고전을 접할 기회가 적은 문과의 학생들은 물론 전공 공부에 바빠 과학의 현대적 고전을 읽을 시간을 갖지 못한 이과 학생들과 석사 이후 연구자들에게도 이 책의 원전강독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3) 운영 기한 및 교재

<수강 조건 및 방식>

매회 발표자를 지정해서 학생들의 발표를 1시간 진행하고, 이후 1시간 동안 강사와 질의응답 및 토론 수업의 형태로 진행. 수강생은 인원제에 따라 총 8회 중 최소 1회 이상 발표를 함

<교재>

◎ 텍스트 : Stephen Hawking, A Brief History of Time (Paperback, 10, Anniversary), Bantam Dell Pub Group, 1998. 224쪽

◎ 참고도서

- 스티븐 호킹, 『그림으로 보는 시간의 역사』, 김동광 옮김, 까치, 1998
- 스티븐 호킹, 『호두껍질 속의 우주』, 김동광 옮김, 까치, 2001

<어학실력, 인원제한>

영어로 책을 읽을 수 있는 일반적 수준이면 가능함.

인원 제한 없음.

(4) 회차별 학습 일정(8주 / 1회당 2시간) 20년 10월 1일 이후~21년 1월 30일까지

일시	강의 내용
1회차	Chapter One Our Picture of the Universe
2회차	Chapter Two Space and Time Chapter Three The Expanding Universe
3회차	Chapter Four The Uncertainty Principle Chapter Five Elementary Particles and the Forces of Nature
4회차	Chapter Six Black Holes Chapter Seven Black Holes Ain't So Black
5회차	Chapter Eight The Origin and Fate of the Universe
6회차	Chapter Nine The Arrow of Time Chapter Ten Wormholes and Time Travel
7회차	Chapter Eleven The Unification of Physics
8회차	Chapter Twelve Conclusion

(5) 담당교수 약력: 김동광(고려대 문과대)

10. 학습반 명칭 :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 학습반

(1) 학습 목표

서양 예술창작과 비평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에 대한 원문 검토하고, 아리스토텔레스 시학의 주요 내용을 확인하고, 그것을 심층 차원에서 음미함으로써 비극과 예술작품 일반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시선’을 확보함.

(2) 필요성 및 기대 효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은 현대에도 여전히 영향력 있는 예술론임에도 불구하고, 학부수준에서는 단순히 ‘미메시스’론의 시초로만 언급되고 넘어갈 뿐, 텍스트에 기반하여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을 철저히 음미할 기회가 없었다. 이번 강독을 통해 아리스토텔레스의 예술론을 플라톤의 그것과 구별하고, 예술의 독립적 지위와 구성원리를 최초로 인식한 철학자로서의 면모가 드러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3) 운영 기한 및 교재

<수강 조건 및 방식>

별도의 수강 조건은 없으며, 플라톤의 <국가> 10권과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 왕>을 읽는다면 아리스토텔레스 관점을 이해하는 데 다소간 도움이 될 수 있다. 강독은 영어 번역을 주로 해서 진행하되 주요한 개념이나 서술에서는 희랍어 원전을 참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교재>

수업교재는 Aristotle, The Poetics(tr.W. H. Fyfe, Harvard University Press, 1932).
상기 번역본은 희랍어-영어 대역으로서, 동일한 희랍어-영어 대역을 온라인에서 구할 수 있으므로(<http://www.perseus.tufts.edu/hopper/text?doc=Perseus:text:1999.01.0056>) 별도의 제본 없이 해당 사이트를 활용할 예정임.

(4) 회차별 학습 일정(8주 / 1회당 2시간) 20년 10월 1일 이후~21년 1월 30일까지

일시	강의 내용
1회차	1장, 2장: 모방과 비극
2회차	3장, 4장: 비극, 희극, 서사시의 구분
3회차	5장, 6장: 비극의 정의
4회차	7장, 8장: 비극과 행위
5회차	9장, 10장: 비극의 성격과 구성요소
6회차	11장, 12장: 비극의 구성: 플롯과 코러스
7회차	13장, 14장: 비극 만들기(1): 인물과 사건
8회차	15장, 16장: 비극 만들기(2): 성격과 발견

(5) 담당교수 약력 - 오현석(고려대 철학과)

11. 학습반 명칭 : 《문화란 무엇인가》 학습반

(1) 학습 목표

본 연구 소모임은 프랑스 문화 연구의 대가 이브 미쇼(Yves Michaud)가 “계몽주의 혁명 이후, 2세기 동안 축적된 지식과 쟁점들을 열린 관점으로 살펴보겠다”는 기치 아래 인류의 정신적 유산을 되짚어 본 저서, *Qu'est-ce que la culture?* (Odile Jacob, 2001)를 원전 강독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특히 본서 중에서도 문화예술 관련 부분을 강독함으로써 문화에 대한 깊이 있는 안목을 갖도록 한다. 음악, 영화, 미학에 대한 프랑스 학자의 고견을 통해 우리가 흔하게 접하는 예술 작품들에 대한 다양한 시각의 감상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학습반의 목표를 둔다.

(2) 필요성 및 기대 효과

프랑스는 문학과 회화를 비롯한 예술 문화가 발전한 나라로 명성이 높다. 여기에 더해 예술이 발달된 만큼 학문의 전 분야에 걸쳐 이에 대한 담론 역시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그래서 문화사회학, 미학, 문화경제학, 예술경영학 등에서 괄목할만한 학자들의 연구업적이 즐비하다.

그러나, 문학과 어학 교육에 집중되어 있는 학과의 정규 교과 과정에서는 프랑스의 예술문화 담론이 구체적으로 다뤄지는 경우가 드물다. 간혹 타과에서 문화사회학이나 미학 등의 교육을 위해 프랑스 학자의 이론이 소개되는 경우는 있으나 주로 번역서나 영역본을 통해 학습하는 경우가 많아 원서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 *Qu'est-ce que la culture?* 의 원서 강독은, 문화예술에 대한 깊이 있는 사고를 연마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학생들에게, 1.고전과 현대 예술 간의 상관관계를 이해하게 하고, 2.일상 속에서의 예술의 이해, 그리고 3.미학적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지적 단련을 가능하게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3) 운영 기한 및 교재

<수강 조건 및 방식>

프랑스어 초, 중급을 수강했거나 이에 준하는 언어 수준을 갖추고, 문화에 관심을 갖고 있는 학생들은 누구나 본 학습반에 참여할 수 있다. 본 학습반에서는 Yves Michaud의 *Qu'est-ce que la culture?* (Odile Jacob, 2001)를 주교재로 삼고, 번역본(강주현 번역), 《문화란 무엇인가?》를 함께 참조할 것이다.

본 학습반은 강독 발제와 토론을 중심으로 운영될 것이다. 참여 학생들의 언어 수준이 서로 다르더라도, 강독 발제와 토론의 과정을 거치는 가운데, 서로의 부족한 부분들이 채워지고, 개인적인 보충 학습을 통해 언어적인 측면에서도 한층 성장해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교재>

Yves Michaud, *Qu'est-ce que la culture?*, Odile Jacob, 2001.

(4) 회차별 학습 일정

일시	강의 내용
1회차	강독 모임 안내 및 개요 / La Classique ou la critique de l'expertise
2회차	La culture et le déplacement
3회차	Le passé et le future du livre
4회차	Le cinéma face à la mondialisation
5회차	Les divers visages de la musique
6회차	Rencontrer l'art du cinéma
7회차	Peut-on aimer un seul genre?
8회차	L'action esthétique

(5) 담당교수 : 조주은(고려대 불문과)

12. 학습반 명칭 : 나쓰메 소세키의 <마음> ; '거꾸로' 읽기

(1) 학습 목표

나쓰메 소세키(夏目漱石)의 <마음(心)>의 일부를 일본어로 읽고 그 해석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이 이 수업의 목표이다. 다만 아래의 이유에 의해, 소설의 순서대로가 아니라 '거꾸로' 읽기로 한다.

(2) 필요성 및 기대 효과

일본문학사에서 근대문학 최고의 정전이라고 일컬어지는 <마음>을 읽을 때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그것은 1914년에 동경과 오사카의 아사히신문에 게재된 <마음>이 지금과 같은 고전의 반열에 오른 것은 전후(戰後)의 일이라는 점이다. 이 정전화의 과정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첫째 전후일본의 근대문학연구가 이 소설의 하편인 <선생과 유서>를 특권화하는 독해를 계속해왔다는 점이며, 둘째 일본의 국어교과서가 마찬가지로 하편만을 발췌해서 학생들에게 읽혀왔다는 점이다.

이 수업에서 우리는 <마음>을 소설의 순서대로 읽지 않고 그 하편인 <선생과 유서>의 주요 부분을 읽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 전후 일본의 문학연구와 교과서를 통한 국어교육이 지향했던 이데올로기가 무엇인지 먼저 경험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전후 일본의 문학연구와 교과서가 배경화했던 상편과 중편을 읽으면서 하편의 이데올로기가 과연 작품 전체를 통해서 성립하는지, 나아가 하편의 이데올로기가 상편과 중편을 통해 어떻게 탈구축될 수 있는지를 생각해보고자 한다.

(3) 운영 기한 및 교재

<수강 조건 및 방식>

중급 이상의 일본어 독해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교재>

강사가 전자책의 형태로 제공할 것이므로 프린트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4) 회차별 학습 일정(8주 / 1회당 2시간) 20년 10월 1일 이후~21년 1월 30일까지

일시	강의 내용
1회차	先生と遺書 1회차
2회차	先生と遺書 2회차
3회차	先生と遺書 3회차
4회차	先生と私 1회차
5회차	先生と私 2회차
6회차	両親と私 1회차
7회차	両親と私 2회차
8회차	

(5) 담당교수 : 곽동곤 (고려대 교양교육원)

13. 학습반 명칭 : 일반 언어학 강의 II 학습반

(1) 학습 목표

「일반 언어학 강의」는 20세기 가장 위대한 언어학자 중 한명인 페르디낭 드 소쉬르(1857-1913)의 제자들에 의해 1916년에 발행된 저서로 근대 구조주의 새 지평을 마련한 언어학의 고전이자 20세기 언어학 최고의 명저로 평가되고 있다. 본 저서의 강독을 통해 구조주의 언어학에 대해 공부하고 나아가 그의 주장이 현대 언어학과 인문학의 큰 줄기에서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를 논의한다.

(2) 필요성 및 기대 효과

현대 언어학의 아버지, 구조주의의 원류, 기호학의 창시자로 불리는 소쉬르는 언어학뿐만 아니라 인문사회과학, 나아가 20세기 유럽사상사의 한 축을 형성한 인물이다. 하지만 저서를 정독하여 그의 연구인 구조주의 언어이론이 어떤 내용인지, 언어학에서 어떤 의의를 지니고 있는지를 아는 이는 드물다.

소쉬르의 나타난 구조주의의 핵심적인 개념과 원리, 방법은 인문학의 제반 영역인 인류학, 문학, 철학, 정신분석학, 해석학, 기호학, 사회학 등과 같은 학문들에 영향을 미쳤다. 구조주의 패러다임은 이 학문들 내의 독자적인 학적 체계를 재구성하여 경이로운 발전을 가능케 했다.

구조주의 언어학에 대해서 익히 들어보았더라도 실제로 그 근간이 되는 소쉬르의 저서를 직접 읽어볼 기회는 많지 않을 것이다. 구조주의와 인문학 전반에 대한 통찰력을 살펴 볼 수 있는 이 저서는 일반 강의에서는 접하기 어려운 서적이다. 언어, 사고, 철학, 구조주의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라면 반드시 읽어 보아야 할 언어학의 고전이다.

(3) 운영 기한 및 교재

<수강 조건 및 방식>

본 수업은 영어로 된 원서를 강독한다. 내용의 이해를 위해서 언어학적 지식이 요구될 것이나 그것은 수업시간에 담당교수가 설명할 것이며 충분한 이해를 위해 함께 토의하는 시간을 많이 가질 것이다.

<교재>

일반 언어학 강의(Course in General Linguistics) / Ferdinand de Saussure

(4) 회차별 학습 일정(12주 / 1회당 2시간) 20년 10월 1일 이후~21년 1월 30일까지

일시	강의 내용
1회차	Orientation & Introduction (ch 1)
2회차	Introduction (ch 1)
3회차	Principles of Phonology (Appendix)
4회차	General principles (Part 1): I, II
5회차	General principles (Part 1): III
6회차	Synchronic linguistics (Part 2): I, II, III
7회차	Synchronic linguistics (Part 2): IV, V
8회차	Synchronic linguistics (Part 2): VI, VII, VIII

(5) 담당교수 : 황유미(고려대 융합뇌신경연구소)

14. 학습반 명칭 : 일본 고문자 학습반

(1) 학습 목표

- 초서체로 쓰여진 일본 고전 문학 및 사료를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 일본 고전 문법의 기초 지식을 몸에 익힌다.
- 텍스트 해독에 필요한 배경지식 조사 방법을 습득한다.

(2) 필요성 및 기대 효과

일본어 문서 및 문학작품은 근대초기에 이르기까지 한자의 초서체로 작성되어 왔다. 따라서 일본의 고전문학이나 역사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본 초서체를 익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본 학습반은 초서체로 쓰여진 일본 고전문학작품을 직접 읽고 해독하면서, 초서체와 문학작품에 대한 지식을 동시에 익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3) 운영 기한 및 교재

본 학습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중급 이상의 일본어 실력이 필요하다. 한자에 대한 지식이나 고전 문법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바람직하다.

일본어 텍스트를 교수자가 복사해 배부하고, 초서체에 대한 기초지식, 초서체 사전 이용 방법 등의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초심자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수업은 한국어로 진행하며, 필요시 일본어와 혼용한다.

초서체 텍스트는 한글 번역본이 없으나, 교수자가 한국어로 대응을 하며 실시간으로 번역하고 배경지식을 설명한다.

교재 :

1. 妖怪絵草紙と怪談で楽しく学ぶ! 「くずし字」読解のポイント
2. 妖怪草紙 くずし字入門

(4) 회차별 학습 일정(8주 / 1회당 2시간) 20년 10월 1일 이후~21년 1월 30일까지

	주제 및 내용	텍스트 범위	비고
1	수업 오리엔테이션 및 일본 문자 성립 이해	복사물	
2	일본 한자 유입과 초서체(구즈시지)와의 관계	복사물	
3	텍스트 해독 및 해설	교재 및 복사물	
4	텍스트 해독 및 해설	교재 및 복사물	
5	텍스트 해독 및 해설	교재 및 복사물	
6	텍스트 해독 및 해설	교재 및 복사물	
7	텍스트 해독 및 해설	교재 및 복사물	
8	텍스트 해독 및 해설	교재 및 복사물	

(5) 담당교수 : 류정훈 (고려대 융합문명연구원)